

## 체커드 플래그

네인 레글랜 X 라제쉬 카지미어 크레이튼

바다보다는 햇살. 더 정확히는 유순하고도 묵직한 열정.

라제쉬 카지미어 크레이튼은 서킷 드 모나코에 처음 들어서던 그 순간을 영영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첫 데뷔의 순간도, 첫 리타이어도, 첫 우승도 아닌 그저 수많은 그랑프리의 한 시즌. 착실하게 인터뷰를 하고, 웰리파잉을 치르고, 그렇게 치른 예선에서 순위를 매겨 서킷에 오르던 날은 정말이지 다른 경기와 다를 게 없는 풍경이었다. 사람은 토할 정도로 많고, 하늘은 구름 하나 없이 맑은데 내리쬐는 태양빛과 타오르는 엔진의 열에 숨조차 쉬기 힘든 온도가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제게 주어지는 기대만큼이나 직접적으로 내리쬐히는 압박이었다. 지중해에 위치한 자그마한 도시 국가. 나라의 삼분지 일이 백만장자라는 이곳은 그 어떤 곳보다도 레이싱을 사랑했다. 길쭉하게 뻗은 서킷의 라인을 따라 자리 잡은 해안선마다 그랑프리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재벌들의 요트가 가득했다.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되기 전, 타이어를 달구기 위해 몇 번이고 서킷을 돌면서 라제쉬는 오월의 모나코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 빠른 속도로 지나치는 레이싱 카를 향해 함성을 지르는 관중들, 유유자적하게 바다 위를 떠도는 요트의 무리들, 고풍스러운 양식의 건물들이 시가지를 꽉 메우고 있는 진귀한 풍경. 무엇보다도 고전적이었고, 그 어떤 경기보다도 정석에 가까웠다. 정말이지 F1이라는 자본주의적이고 귀족주의적인 스포츠를 그대로 박아둔 것만 같았다. 라제쉬는 서킷 드 모나코의 이런 지점을 마음에 들어 했다. 레이싱이라는 지극히 원초적이고 야만적인 싸움을 우아하게 치장하려 드는 게 나쁘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세상에는 그런 부류의 ‘포장’이 제법 많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F1에 소속된 팀 중에서도 그가 속한 페라리는 유독 정석적이었고 정통성을 중요시했다. 좋은 말로 하면 기본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직설적으로 말하면 다소 꼰대 같았다. 그런 팀의 세컨드 드라이버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건 정말이지 행운이라고 해도 부족할 정도였다. 팀에 딱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를 차지하기 위해 매년 수십에서 수백이 넘는 드라이버들이 목숨을 걸고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인생에 다신 없을 호재일 터다. 그러나 라제쉬는 그런 기회와 행운 하나하나에 모두 감사해하지 않았다. 타고나길 스포츠맨으로 난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는 겸양이 아니었으니까. 필요한 것은 제게 주어진 것을 가득 움켜쥐고도 그 이상을 바라는 욕망이다. 헬멧 안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건 확실히 세간에 알려진 ‘사교적’이고 ‘배려심’ 깊은 ‘라제쉬 카지미어 크레이튼’이라는 사람의 것은 아니었다.

아.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모조리 불에 타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신호를 기다리는 내내 손끝이 저려 참을 수가 없었다. 단 하나의 깃발이 휘날리는 순간, 그는 망설이지 않고 악셀을 밟았다. 저보다 앞에 선 자는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으로 레이싱 카를 몰았다. 페라리보다는 레드불에 가까운 드라이빙이었고, 위협에 가까운 난폭함이었다. 그 무엇보다도 고전적인 대회에서의 파란이었다.

관객들은 환호했다. 보통의 ‘일반적’인 스포츠의 관람료를 한참 웃도는 풋값을 거뜬히 지불한 이들은 말 그대로 도파민에 미쳐있었다. 그들이 사랑하는 건 엘리트의 뻔한 연승이 아니라 막판 뒤엎기에 성공한 도전자의 반란이었다. 선두를 차지하던 레드불 두 대가 제 성질을 못 이기고 기어이 맞부딪히며 굉음을 냈을 때, 놀란 관중은 걱정과 짜릿함이 동시에 섞인 비명을 내질렀다. 뜨거운 햇살 아래 기업을 돈을 퍼부어 만든 현대 레이싱 공학의 결정체가 불에 타 녹아내렸다. 탈출에 성공해 헬멧을 내던진 레드불의 퍼스트 드라이버의 사이로 붉은 차체가 빠르게 지나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5위에 그쳤던 라제쉬의 순위는 이제 3위로 올라가 있었다. 이 모든 게 요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미묘한 짜증을 불러일으켰지만, 운도 실력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점은, 어쩌면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이리라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었다. 당장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시트만 해도 그러했다. 그 누가 페라리의 시트가 하 루아침에 비게 되리라 생각했겠는가. 누군가의 이탈은 필연적으로 기회를 만 들기 마련이었고, 라제쉬가 가장 잘하는 일은 그렇게 만들어진 ‘천운’을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비록 행운을 만들어내는 것 만큼은 그의 몫이 아니었으나 여기에서는 이것만으로도 괜찮았다. 이 세계는 그에게 상냥했으니까. 필요한 것을 손에 쥔 그에게는 이제 망설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남은 선택지는 오직 가속뿐이다. 브레이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악셀을 밟고, 핸들을 돌렸다. 우주비행사의 그것과 필적한다는 중력가속도를 견디며 여름 아래의 모나코를 만끽했다. 바다, 요트, 호화로운 리조트. 모나코하면 으레 생각나는 휴양의 이미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았다. 라제쉬는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으니까. 무수히 많은 카메라와 사람 앞에서 뒤틀리는 가면 대신 단단하고 가벼운 헬멧이 그에게는 전부였으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눈 앞에는 아무런 형체도 보이지 않으니 아무 것도 정제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다른 이의 시선 따윈 묵살하고 오직 골을 향해 달리는 몇십 분이 진정한 휴양으로 느껴졌다. 미친 듯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공기가 숨을 틀어막고 있었지만 라제쉬는 이 순간, 진정으로 호흡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골인 지점까지 한 바퀴를 남기고 바로 앞의 맥라렌을 추월한 순간.

상황실에서 들려오는 칭찬이라거나 환호성 따위는 귀에도 담지 않은 채 라제쉬는 짧게 중얼거렸다. 네인. 자신이 뺄는 호흡이며 말이 전부 녹음되어 중계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꺼내는 단어였다. 으레 승부욕이 강하고 호승심이 높은 선수들은 역전의 순간이나 리타이어하게 되었을 즈음에 본능적으로 욕설을 짓씹기 마련이었지만 라제쉬는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욕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치 자신의 모든 근원과 믿음이 바로 이 두 글자에 담겨 있다고 보여주고 싶은 것처럼 타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네인. 못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의 발언은 딱 거룩했고, 신성하기까지 했지만 라제쉬의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신실’ 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를 믿는 종교인들과 같이 애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주목된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호소하듯이 그 이름을 불렀으니까. 참으로 과시적인 부름이었다. 이상하리만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지는 않은 심연이었다. 라디오를 들은 엔지니어 팀의 막내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정말 ‘반듯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라제쉬 씨는. 레이싱 도중에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네인’이라는 분에게 비치는 라제쉬 씨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명망 있는 페라리의 드라이버로서의 라제쉬 카지미어 크레이튼. 그리고 ‘레이싱 선수’로서의 라제쉬 카지미어 크레이튼. 그 두 갈래의 남자를 들여다본 것도 모자라 그 너머의 라제쉬를 은연중에나마 파악한 ‘외부인’은 그 막내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점은 막내는 얼마 가지 않아 본부로 교육을 받으러 떠나게 되면서 이 이상으로 라제쉬의 ‘사적인’ 영역을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당사자인 라제쉬는 한창 경기에 집중하느라 이 자그마한 ‘사건’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막내의 의문은 현장에 있었던 네인에게 직접적으로 닿게 된다.

눈 위로 내려오는 청색의 머리. 소매 끝이 살짝 닳은 옷차림과 구부정한 체구. 아무리 봐도 F1 레이싱 팀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딱 눈에 띄었다. 피트에서 상주하는 엔지니어들은 평범한 IT 회사의 그들과는 달리 실전 근육이 잔뜩 배겨져 있었으므로 척 봐도 네인은 관계자로 취급될 여지조차 없었다.

팀원들은 네인의 목에 달린 관계자용 출입 패스를 보곤 그저 그가 관계자 중 일부의 지인이거나 아주 많은 돈을 주고 이곳까지 ‘구경’을 오신 털털어진 부잣집의 자제이리라 생각했다.

모든 것이 자본으로 흘러가는 F1 세계에선 돈이면 해결되지 않는 게 없었는데, 그중에는 구단의 기술력이나 인력 같은 핵심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관객들의 ‘등급’도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인기 없고 서킷 끄트머리에 있는 좌석조차도 1000달러는 우습게 책정되는 게 이 바닥이었지만, 때로는 그의 몇십 배에 달하는 돈을 퍼붓고 ‘견학’을 신청하는 이들이 나타나곤 했다. 구단 차원에서도 이런 거물들을 꾸준히 유치하고자 특수 출입증이니 뭐니 하며 프리미엄 패스를 만들어냈다. 이런 패스들은 관객석이 아니라 아예 F1 선수들이 오가고 엔지니어들이 대기하는 피트에까지 들어가 경기 상황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내밀한 부분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보다는 재벌 기업의 자제나 인기 셀럽들이 주로 구매하곤 했다. 눈앞의 ‘도련님’도 아마 그런 부류일 듯싶었다. 마냥 도련님이라고 부르기에는 그 태도가 자신 있어 보이진 않았으나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만큼, 깊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니 적어도 피트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라제쉬가 그토록 중얼거리던 ‘네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자의 것이라는 걸. 그 이름이 팀 라디오를 타고 흘러 피트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남자의 입술 끝이 움찔거리며 비틀린다는 걸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팀원들이 이 ‘도련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건 라제쉬가 기어이 선두를 지켜 내며 체크드 플래그를 세운 이후였다. 오직 그랑프리 첫 완주자에게만 올라가는 흑백 문양의 깃발을 눈에 담은 순간, 거세게 핸들을 내려치며 포효하는 라제쉬의 모습이 전 세계로 송출되었다. 기존의 우승자로 점쳐지던 이들을 모두 제치고 새로 나타난 다크호스. 순식간에 불어난 팀 스코어와 ‘우승’이라는 강렬한 두 글자에 피트 안의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열싸안았다. 흥분하여 자제하지 못한 욕설과 기쁜 비명이 귓가를 어지럽히는 동안에도 ‘도련님’은 상기된 얼굴과는 다르게 미동도 없이 중계 화면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안에서 공명하고 있는 건 오직 그 자신과 화면 너머의 라제쉬 뿐이라는 것처럼 굴어댔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긴장으로 붉어진 뺨과 마디마디가 희게 팽진 주먹과는 대조적으로 지나치게 어색했다. 관중들이 페라리와 함께 라제쉬의 이름을 연호해달 때마다 그는 초대받지 않은 장소에 불안간 떨어진 사람처럼 몸을 바짝 굳혔다. 보다 못한 라디오 팀의 보조 팀원이 말을 걸어왔다. 혹시 몸이라도 아픈 건 아니겠죠? 나름의 배려였지만, 말이 걸어지자마자 ‘도련님’은 화들짝 놀라 괜찮다는 말 말고는 당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을 던지듯 빨고는 자리를 떠났다.

피트 밖으로 벗어난 네인은 복도에 이마를 댄 채 기댔다. 외부인의 갑작스러운 난입과 위협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경계를 만들어둔 건물 안은 사람 하나 없이 싸늘했으나 그곳마저도 승리의 기쁨에 취한 관중들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바깥에서부터 라제쉬의 이름을 마구 외치는 함성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네인은 계속해서 이마를 벽에 짓누르다 어깨를 움츠렸다. 아. 싫다. 누구보다 라제쉬의 우승을 바랬던 건 그 자신이었음에도 막상 우승을 차지한 라제쉬가 다른 이들에게 외쳐지고 강렬하게 욕구되는 순간을 보자니 속이 차가워졌다. 그건 분노보다는 불안에 가까운 마음이었다. 라제쉬 카지미어 크레이튼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며 전적으로 의지해주 느냐는 것과는 별개로 네인 레글랜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핍이 바로 이것이었다. ‘내 자리’를 빼앗기기 싫은 아이와도 같은 절박함. 누구보다도 애정을, 사랑을 원해 안달하는 주제에 막상 그것을 손에 쥐면 무게를 견딜 수 없어 몸부림치며 내던지는 서투른 본성. 라제쉬가 얼마나 F1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의 영광을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가 지나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 순간. 어깨를 나란히 한 라제쉬와 자신이 얼마나 어색한 상태인지 깨달아버린 그 때. 그의 추락 또한 빌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사실에 네인은 제 안에 존재하는 양가적인 감정에 질려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반듯하게 페인트칠 된 복도에는 오직 그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졌다. 네인은 라제쉬가 자신을 읊던 것처럼 라제쉬의 이름을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라제쉬, 라제쉬, 라제쉬.

그 모습이 마치 맹렬한 애착을 지닌 아기 오리처럼 느껴졌지만 이면에는 광신도와 비슷한 집념 또한 존재했다.

계속해서 연호되는 이름을 들으면서, 네인은 이제 그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정신이 너무나도 피로했다. 이런 밝은 햇살은, 찬란한 영광은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사실을 더는 상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 제 곁에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라제쉬 또한 이 영광에서 벗어나 빛 대신 그림자와 어울려줬으면 했다. 눈을 감은 채 네인은 중얼거렸다. 언제 오는 거야, 라제쉬……. 평소처럼 레이싱 카에서 내려오자마자 제게 달려와 줬으면 했다. 눈을 마주치고, 과거를 되새기던 마법 열차에서 보여주던 그 얼굴이 보고 싶었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라곤 세상에 자신밖에 없던 것처럼 흔들리던 눈을 보여줬으면 했다. 모나코의 호화스러운 풍경이며 따뜻하고 평화로운 도시의 모습은 네인에게 하등 중요하지 않았다. 이 그랑프리 장소가 내내 비만 내리는 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이라 할지라도 라제쉬만 제 곁에 있다면 아무래도 좋았다. 제가 살아 숨 쉬어야만 했던 세계를 거슬러 온 이후 손 뻗어 갈취해온 것이라곤 라제쉬 한 사람 뿐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좁아든 시야가 햇볕과 환호를 받고 다시금 넓어진다면. 서로의 거리와 처지가 얼마나 다른지 깨닫는 날에는. 그런 가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피로워진다. 숨구멍을 찾는 물고기 마냥 입을 뻐끔거린다. 가팔라지는 호흡을 정돈하려 하며 이제 그는 억지로 흐느껴 우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라제쉬…….

언제 오는 거야.

그러는 동안에도 우승자를 향한 축하는 계속된다. 세간의 소식은 잔인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네인에게 쏟아졌고, 사회자의 빠른 영어가 고스란히 귓가에 스며들었다. 단상 위에 선 라제쉬, 트로피를 손에 들고 꽃다발을 품에 안은 라제쉬, 선수들은 익히 알려진 축하 세레머니인 샴페인을 터트리는 행위를 했고, 폭탄처럼 터지는 샴페인들이 마구 하늘 위로 솟구치며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냈다. 보이지 않는 풍경이었음에도 모든 것이 생생했다.

언젠가 라제쉬가 말해주었던 모습이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목소리를 빌려 울려 퍼졌다. 축하 파티는 더 이어져서, 이제는 그랑프리의 탑3에 든 선수들이 마이크를 잡고 저마다의 감상을 이야기했다. 3위를 차지한 선수가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며, 긴 시간의 고충을 토로하며 감격을 표했고 그 엇비슷한 소감이 2위 선수의 입을 빌려 다시금 꺼내졌을 때 네인은 이곳을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에게 있어 ‘건전한 자립’이란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었으니까. 모든 것은 누군가 질리거나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혹은 자신의 실속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라제쉬와 어깨를 나란히 한 지금까지도 그를 불안하게 하고, 네 탓이라고 약해진 마음 끝을 비집고 들어가 쥐었던 것으로. 사랑이라는 걸 동경하고만 자란 공허를 메웠던 것은 네인 스스로가 결코 아니었으니까. 네인 레글랜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오직 라제쉬 카지미어 크레이튼이 느끼는 우울이었다. 영영 자유로울 수 없이 마음 준 누군가의 옆을 땀돌아야 한다는 신념. 본질적으로는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마음. 상처받지 않기 위해 타인을 무시하고 마는 성정. 운 좋게 그것을 짐작한 채로 라제쉬를 내몰 수 있을 만큼 내몰아 그의 약한 마음 속에 박아넣었으나 라제쉬는 모르고 네인만이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는 넘쳐난다는 것. 네인 레글랜이 정말로 필요한 건 오직 라제쉬 카지미어 크레이튼을 저 혼자 ‘독차지’하는 일인 것이었다. 라제쉬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 바깥세상을 알아버린 라제쉬가 자신을 떠날 것만도 같아져서… 눈 아래로 짙은 눈물이 배어났다.

인터뷰는 이어졌고, 이제는 주인공의 차례가 다가왔다. 라제쉬는 레이싱에서 보였던 본능적이고 호승감 가득한 면모를 싹 지워낸 채 언제나의 ‘반듯함’을 비춰냈다.



단정한 감사 인사로 입을 떼는 그는 여느 우승자들과 다름없이 팀원에게로 공을 돌리며 F1이라는 스포츠의 ‘협동적’인 모습과 ‘팀플레이’를 강조하며 모범적인 소감을 이어갔다. 그 반듯함이 얼마나 철저한지, 동시에 깨지기 쉬운 것인지 잘 알기에 억울함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러나 그 억울함마저도 결국엔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여 네인은 라제쉬의 발언 속 ‘균열’을 찾아내려 한다. 저 멋들어진 반듯함이 깨지는 지점을, 약해지고 무너지는 부분을 공략하고 싶어서, 공략해야만 해서. 그렇게 라제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음. 아무래도 그거겠네요.*

*네인, 사랑해.*

그러나 라제쉬의 입에서 꺼내어진 건 의도치 않은 균열도, 철저한 모범도 아닌 순수한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 네인은 눈조차 깜빡이지 못한 채 멍하니 바닥을 응시했다. 그토록 기도하듯 중얼거렸던 이름에 대한 의미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주제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꺼내는 저의를 영 삼켜 소화낼 수가 없어서. 네인은 눈을 빠르게 깜빡이며 고개를 치켜들었다.

복도의 끝에는 문이 있었다. 그 문을 열고 쪽 달려간다면 라제쉬가 있는 곳이 나올 터다. 단 몇 분의 시간에 용기를 쏟는다면, 네인은 감히 애정을 물어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잊을만 하면 뱃속을 무겁게 만드는 비겁한 마음을 삼켜볼 수도, 상대를 위한 애정이라는 것을 심부에 담아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네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햇살 아래 빛나는 라제쉬를 떠올리면서, 그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 복도의 끝은 멀지 않았다. 결심보다도 먼저 닿은 선택의 순간이 그의 앞에 놓여있었다. 네인은 숨을 들이켰다. 저 밝은 태양 아래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생경한 애정을 삼킬 수 있을까. 손끝이 떨려 문고리를 만질 수가 없었다. 그의 목에 걸린 관계자용 패스만 몸의 균열을 따라 달랑거리며 이따금 소음을 내었다. 그리고 쏟아지는 축포 소리. 온전한 ‘세상’과의 경계. 그러니까, 저를 받아주지 않아 내버렸던 세계. 그러나 그 정중앙에서 사람들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는 라제쉬 카지미어 크레이튼. 빛이 들지 않는 눈이 반짝이고 있다. 그 무언의 유혹에 네인은 이제껏 해왔던 일을 한다.

그릇이 깨어지더라도 원하는 것을 향해 손을 뻗는.